제12강 시간의 두 번째 종합: 순수과거

(1교시)

◆시간의 단초와 그 한계
※학습목표: 시간의 단초를 재확인하고 시간의 근거를 생각해본다.

▲강의의 맥락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축이다. 습관을 굳히는 것이다.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의 가능근거는 순수과거다.
-베르그송은 mémoire, souvenin를 쓴다. souvenin는 특정한 과거다. mémoire는 과거자체다. 논의는 souvenin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한 얘기로 출발해서 순수과거의 얘기로 진행한다.

▲현재의 역설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비록 그것이 **시원**을 이루는 종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시간 내적이다. 이 종합은 시간을 현재로 구성하지만, 그렇게 구성된 현재는 지나가버리는 현재이다. 하지만 현재는 서로를 **침범**하는 도약들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현재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즉 현재는 시간을 구성하지만, 이 구성된 시간 안에서 지나가버린다.」*
-시원은 그냥 실마리, 단초다.
-시간의 단초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지만, 어떤 것이 시간의 종합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는 현대의 시간보다 더 심층에 있어야 한다.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이 실마리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내적이다. 그래서 근거가 아니다. 왜냐면 근거 짓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있어야 한다.
-서로 침범한다는 것은 상호침투성을 말한다. 현재가 어디서부터 현재인지 말할 수 없다. 그것이 현재가 도약 하면서 상호침투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간의 필요
*「그 안에서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이 일어나는 어떤 또 다른 시간이 있어야 한다.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필연적으로 어떤 두 번째 종합을 전재한다. **수축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현재가 지나가는지, 그리고 현재가 시간과 똑같은 외연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현대를 지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축은 유한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주는 더 큰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가 똑같은 시간과 똑 같은 외연을 공유한다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coextensive라 한다. 현재가 시간과 coextensive하다면 과거와 미래가 없다. 그것은 신의 경지다. 그런데 시간은 지나간다. 그럼으로써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볼 수 없다. 즉 유한하다.

▲유한과 무한
-metaphysical하다고 할 때,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일차적 뉘앙스는 무한이다.

www.artnstudy.com

-서양철학사는 유한과 무한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리스철학은 유한주이다. 무한이 있다면 잠재적인 무한이다. 외연적 의미의 무한이 등장한 것은 유대교 전통과 더불어 중세에 처음 등장한다. 무한주의의 철학이 꽃피는 것은 17세기다. 17세기의 형이상학이 무한의 형이상학이다. 반면 영국경험론과 칸트는 무한을 잘라버린다. 무한을 거부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이다. 그때 이후로 무한주의는 철학에서 몰락한다. 그리고 수학에서 꽃피운다.

www.artnstudy.com

(2교시)

◆시간의 근거
※학습목표: 시간의 근거인 기억,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정초(단초, 실마리)와 근거의 구분
「*시간의 종합은 습관의 종합이고, 이 종합은 시간의 진정한 **정초**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초와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 정초는 땅과 관련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떻게 그 땅 위에 세워지는지, 어떻게 그 땅을 점유하고 소유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근거는 차라리 하늘에서 비롯된다. 근거는 정상에서 정초의 지점들로 향해 가고 소유권에 따라 땅과 소유주를 측정한다. 습관은 시간의 정초지점이고, 지나가는 현재에 의해 점유된 움직이는 땅이다. 지나간다는 것, 그것은 정확히 현재의 요구이자 지망이다.*」
-정초는 단초, 실마리로 보는 것이 좋겠다.
-fondation은 현재에 사용한다. fondement는 fondation의 가능근거로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것이다.
-하늘은 과거로 땅은 현재로 비유되었다.
-요구이자 지망이란 것은 현재가 고착된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향함을 뜻한다.

▲시간의 근거
「*하지만 현재를 지나가도록 만들고 현재와 습관을 전유(全乳)하는 것은 시간의 근거로 규정되어야 한다. 시간의 근거는 다름 아닌 본연의 **기억**에 있다.*」
-기억은 잠재성virtuality이다.
-현재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 현재가 그것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반면 동시에 현재로 다시 나타난다. 그렇게 현재와 함께 있고 현재와 부단히 순환하는 것이 잠재성이다.

▲기억의 종합 (1)
「*우리는 앞에서 기억이 파생적인 능동적 종합이며, 이 종합은 습관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았다.*」
-기억은 현재에 대해 능동적이다. 왜냐면 기억의 능동성이 없다면 시간은 오로지 지나가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데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이 쌓이고 쌓인 기억이 현재로 되돌아와서 어떤 작용을 한다. 그렇기에 능동적이다.
-현재는 오로지 지나가기만 하지만 과거는 어떤 능동성을 형성한다.

▲기억의 종합 (2)
「*사실 모든 것은 정초에 의존하다.*」
-현재의 수축작용이 없다면 애초에 과거가 될 수 없다.

▲기억의 종합 (3)
「*하지만 기억을 구성하는 것은 결코 거기에 주어져 있지 않다. 기억은 습관에 정초를 두는 동시에 습관과 구별되는 또 다른 수동적 종합에 의해 근거 지어져야 한다.*」
-현재가 단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억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안에 있다.

www.artnstudy.com

-과거는 이중적이다. 현재에 대해서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자체의 영역에서는 수동적이다
-인간의 기억은 과거자체 차원에서 수동적 종합이 일어난다. 하나의 고착된 실체가 아니다.

▲현재와 과거의 순환
「*기억은 습관에 정초를 두는 동시에 습관과 구별되는 또 다른 수동적 종합에 의해 근거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습관의 수동적 종합은 그 자체가 이런 보다 심층적인 수동적 종합을 전제한다.*」
-과거는 현재의 정초에 의존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축이 없으면 과거는 애초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현재는 과거에 근거해서 지나간다.
-기억도 자체 내에서 쌓인다. 기억이 현재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에 작동하는 한에서 기억은 능동적이다. 하지만 기억이 쌓이는 것은 기억자체의 수동적 종합이다.

▲전체 요약
「*Habitus와 Mnémosyne, 혹은 하늘과 대지의 연대. 습관은 시간의 시원적 종합이며, 이 종합은 지나가는 현재의 삶을 구성한다. 기억은 시간을 근거 짓는 종합이며, 이는 과거의 현재를 구성한다.*」
-Habitus는 대지, Mnémosyne는 하늘이다.
-습관은 시간 종합의 실마리며, 이 종합은 지나가는 현재의 삶을 구성한다. 거기에 비해서 기억은 시간을 근거짓는 종합이다. 현재가 시간의 실마리고 기억은 시간의 바탕이다.

www.artnstudy.com